

車업계, 물류난 대응 TF 구성... '퍼펙트스톱' 저지 사활

현대차·車산업협회 등 TF 참여
화물연대 파업종료시까지 운영
“업계 피해·애로사항 신속 대응”

한국 수출의 버팀목인 자동차 업계가 외부악재로 인해 '퍼펙트스톱'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난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완성차 업계는 위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힘겨운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이날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완성차 생산 차질이 부품 수요 감소에 따른 부품업체 경영 애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직면했다”며 “자동차 업계는 피해나 애로사항을 매일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TF를 가동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내에 운행이 멈춘 대형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TF에는 현대차·기아·한국지엠·쌍용차·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쌍용협동회·르노코리아협신회 등 부품업체 단체들이 참여했다. TF는 자동차산업협회 내에 꾸려졌으며 김주홍 협회 정책연구소장이 팀장을 맡았다. TF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TF는 부품 수급 현황과 차량 생산, 수출 차질 등 현장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필요한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내놓고 정부

와 국회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에도 현대차 울산공장은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협력업체들이 비조합원 화물차 기사들과 직접 계약해 부품을 납품하면서 가동률은 다소 올라가고 있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한때 울산공장에서는 필요한 부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생산라인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차량 출고가 지연되면서 고객 차량 인도받는 데까지 시간이 더 길어져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타승작업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맡아왔는데 현대글로비스의 협력업체 소속 화물 노동자의 7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카커리어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임시방편으로 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을 공장으로 파견해 타승 업무를 맡게 했고, 지금은 현대글로비스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인력을 공장으로 보내 차량을 출고센터로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차량 대기가 길어진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신차를 직접 운전해 옮기는 '로드타승'을 둘러싼 논란도 확대되고 있

다. 차가 인도되기 전 누적 주행거리가 100km를 넘는 것은 물론, 도로 주행동안 돌이 튀어 차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따른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임금 인상부터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연장까지 다양한 요구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쌍용차를 제외한 4개사(현대차·기아·한국지엠·르노코리아)는 올해 임단협을 진행한다.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한 완성차업체 노조는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다. 한국지엠 노사는 정년 연장을 놓고 교섭에 나선다. 올해 완성차업계의 임단협에서는 임금피크제 폐지와 정년 연장 외에도 기본급 인상, 성과급 배분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계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노사 갈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내수 판매는 물론 글로벌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 일부 공장가동 중단... 산업 곳곳 연쇄 타격

적재 공간 부족에 공장 중단 잇달아
예상보다 긴 파업... 기업 손해 눈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 접어들며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가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놓였다. 산업계는 예상했던 것보다 파업이 길어지며 기업들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선재와 냉연공장 가동을 이날 오전 7시부터 중단했다. 제품의 육속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 지속되며 제철소 내 제품창고에 더는 철강재를 쌓아둘 수 없는 상황이다.

선재공장은 제품창고가 부족해지며 제철소 내 주차장과 도로에까지 제품을 이적하고 있어 1선재공장부터 4선재공

까지 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선재공장에서는 타이코드용 선재와 피아노 선재, 스프링강 등을 생산하고 있다.

냉연공장은 자동차용, 가전용 제품과 고급 전자제품 소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2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선재와 냉연 제품의 경우 둥근 모양 등 형태 특성상 무조건 높게 쌓을 수 없어 적재 공간이 부족해

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포스코는 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선재제품 하루 약 7500톤, 냉연제품 약 4500톤 등 하루 총 1만2000톤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관련 업계의 연쇄 타격도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아직 관련 제품을 적재할 공간이 있어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선재 운반 설비가 가동을 멈추고 있다. /뉴시스

생산 감소 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현대제철 역시 하루 약 4만톤에 이르는 제품을 적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성운 기자

www.yonhapnews.co.kr

지난해 국내외 뉴스가 한 권에...
‘연합연감 2022년 판’ 출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매년 발행하는 종합 시사 정보 자료집 ‘연합연감 2022년 판’이 6월 13일 출간됐습니다. 2021년 한 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지방, 세계 등 각 분야 주요 뉴스와 각종 통계, 도표 등을 정리해 수록한 이 자료집은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15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해 집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2022년 연합연감’을 e북으로만 판매하고 정부 부처, 국회, 법원 등 주요 기관과 단체에 기증합니다.

초점으로는 2022년 3월 제 20대 대통령선거를 화보와 함께 담았습니다. 또 코로나 유행에 가까스로 회복한 일상 회복 중단, ‘빛무’·‘영끌’ 등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들끓었던 ‘부동산-주식-코인 시장 고공 행진’, BTS·미나리·오징어 게임 등 전 세계를 달군 K-컬처, LH 임직원까지 가세한 땅투기 논란, 산업계에 달친 요소수 반도체 불거 현상 등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본문에는 분야별 뉴스를 사진과 그래픽, 표 등을 곁들여 체계적으로 편집하는 한편 중요 사건·사고를 일자로 요약 정리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또 각종 현행에서는 국가별 지도와 면적·인구·언어 등 개요는 물론 최근 상황까지 담았습니다. 자료 편에는 통계, 일람, 주요 연설·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등 다양한 자료를 별도로 엮어 게재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급변하는 북한의 정세와 현황을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하는 조선중앙통신사의 뉴스와 조선중앙TV 보도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별 지도와 함께 나열한 북한 시·도 지리와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등을 담은 김영정 노동당 부부장 단화를 포함한 연설 및 발표문, 북한 10대 뉴스, 일지, 연표 및 북한 주요 인물들의 학력·경력 등을 소개해 자료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 4×6배판 양장본, 총 1천336쪽
■ 가격 : 18만원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